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효과성 검증

전지원

숙명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사

The Effect of Helicopter Parenting and Social Capital on the Resilience of Korean Young Adults

Jeewon Chun

Lecturer,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부모 모두 생존하며 부모 중 한 분 이상과 동거 중인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미혼 청년 총 464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성별,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결속적 사회자본 및 교량적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 등의 다각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 및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년세대, 회복탄력성,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ed variables of the resilience of Korean young adults. The sample was 464 young adults aged 19-34 years who had never been married, both parents alive and living with one or more of their par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23 and AMOS 23.0. The resilience of young adul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variables of gender,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ilience of young adults was formed and promoted by the combined effects of the family-related environment and social-related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data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field when developing programs to build the resilience of young adult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silience of Korean young ad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Young Adults, Resilience, Helicopter parenting, Social Capital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5A07072267).

*Corresponding Author : Jeewon Chun(cjeewon@sookmyung.ac.kr)

Received January 15, 2021

Revised March 2, 2021

Accepted March 20,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최근 청년세대의 삶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각별하게 주목받는 주요 이슈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은 교육기간과 구직기간 연장, 입직연령의 지연, 부모로부터 경제적-물리적 독립의 지연 등 성인으로서의 역할취득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부모의 관여와 개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성장 과정에 있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의 과보호와 과도한 개입,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노출 등 편향된 삶의 경험들로 인하여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갖추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청년세대가 지적되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1]. 이에 대한 실례로, 서울시 청년세대 중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가 2015년 120,333명에서 2019년 224,071명으로 80.8% 증가 되었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청년세대의 심리정서적 문제 양상이 증가 되어 2018년 기준 우울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20대는 98,434명으로, 2012년(52,793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 되었다. 세대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대가 86.5%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30대도 24.9%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3]. 이처럼 청년세대가 문제 상황 또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긍정성이 강조된 역동적 과정을 지니고 있어 정신건강 증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응과 발달을 이끄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4]. OECD(2019)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다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회복탄력성을 강조하였다[5].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발달심리학과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전 생애에 걸쳐 한 개인이 삶의 도전적인 과제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성장했는지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6]. 생애발달 관점에서 청년세대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발견의 기간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7].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상황에 대한

적응의 개념을 넘어서 성인기 발달과업인 독립의 과업을 성취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확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둘째,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 확보를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만큼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요인들을 강화하는 것이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행복과 성공의 기본요소이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융통성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된다[9]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확보에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회복탄력성은 상황적 요구 많거나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성취할 뿐 아니라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세대의 학업 종결, 취업, 결혼 등과 같은 발달과업이 지연되고 장기화하면서 성인기 과업 수행이 당사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공동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는 말 그대로 헬리콥터처럼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진입기에 이르러서도 자녀의 주변을 주의 깊게 맴돌면서 끊임없이 관여하고 개입하며 간섭하는 부모를 의미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의 애정,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수준이 모두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학부모 전용 포털사이트가 독립적으로 개설되는 등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녀의 수강신청부터 학점관리, 군입대, 진로와 취업,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테이트와 배우자 선택까지 관여하고 개입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0-12].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은 부모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대신 결정해주는 등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지속한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되어 역경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부모의 관여와 개입은 청년세대에게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을 경험하게 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여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며, 사회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불안 및 감정 조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17].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낮아졌으며,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유사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 결여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어져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메타경로분석을 통해 청년세대의 이전 발달단계인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 부모지지가 확인된 결과[19] 이외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중 가정환경 변인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청년세대가 독립된 주체이자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역량인 회복탄력성과 헬리콥터 부모역할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내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뿐 아니라 타인과의 유대감·신뢰감 형성 및 협력 관계 양상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20]. 개인 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통해 형성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자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Putnam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기능적 접근에 근거하여 사회자본을 분류하고자 한다.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결속적(bonding) 유형과 교량적(bridging)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정서적 교감 및 지지의 근원이 되는 친밀한 관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교량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다양한 정보 또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의미한다[21]. 즉,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 간에 유용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 및 친밀감을 획득하게 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신건강, 심리적 적응 또는 안녕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3]. 사회자본의 구조적 차원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이며 [4],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취되는 사회적 지지도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4].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현재 상태를 설명해주는 척도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므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의 심리정서적 양상에 회복탄력성이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으로 활용되거나 다양한 결과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회복탄력성은 우울감 극복에 기여하는

주요 변인[25]이며,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6].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았고[27],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접근보다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을 선택하였다 [28].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27]와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29]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정서학대, 어머니의 신체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에 미국 대학생의 경우 회복탄력성이 어머니의 방임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30]. 이와 같이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자체를 심도 있게 살펴본 연구는 미미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융복합적 관점에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각적인 탐색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양상인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적 상호관계 양상인 사회자본에 대한 결과변수로 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들은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실질적으로 실효성 높은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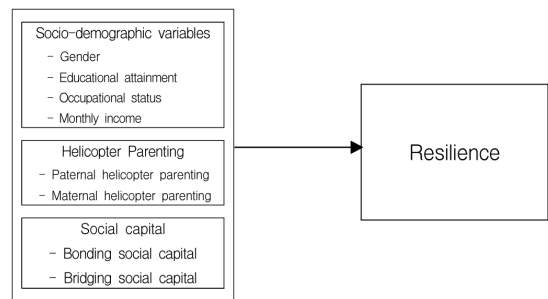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1]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

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한국사회 내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련 법안 기준을 수렴하여 설정하였다.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참고하여 조사 진행 시점 기준으로 당시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며, 결혼 경험이 없고, 부모 모두 생존하고, 초혼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부모 한 분 이상과 동거 중인 청년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연령대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남녀 성비를 유사한 비율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으로 한정 한 이유는 거주지역에 따른 개인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및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로 지역별 사회자본을 측정 한 결과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31]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가족가치관 역시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결과[32]를 참고하여 자료수집을 설계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국내의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확보한 대규모 온라인 패널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구성원 중 참여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게만 응답할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한 참여자는 동일 조사에 다시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은 응답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결측값은 없었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46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헬리콥터 부모역할

청년세대인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LeMoyne와 Buchanan[33]이 개발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강시은과 이재림[34]의 척도(부모 각 10문항, 총 20문항)를 사용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HPS)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해당 척도의 신뢰도를 낮춘 문항이 다소 상이하여 대체로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표본적절성에 대한 검증으로 Kaiser-Meyer-Olkin(KMO) 값을 살펴 보았는데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는 .85,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는 .88로 나타났으며, Barlett 구형성 검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아버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Frequency(%))

Variable	Category	Total (N=464)	Age (M=27.0, SD=4.08)		
			19-24 yrs. (N=151/32.5%)	25-29 yrs. (N=157/33.8%)	30-34 yrs. (N=156/33.6%)
Gender	Male	228(49.1)	75(49.7)	75(47.8)	78(50.0)
	Female	236(50.9)	76(50.3)	82(52.2)	78(50.0)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27(5.8)	15(9.9)	9(5.7)	3(1.9)
	College & University student	122(26.3)	97(64.2)	25(15.9)	-
	College & university bachelor's degree	285(61.4)	33(21.9)	114(72.6)	138(88.5)
	Graduate school or more	30(6.5)	6(4.0)	9(5.7)	15(9.6)
Occupational status	Currently Employed	269(58.0)	37(24.5)	99(63.1)	133(85.3)
	Employment Preparation or Job Search	76(16.4)	29(19.2)	31(19.7)	16(10.3)
	Student	76(16.4)	60(39.7)	16(10.2)	-
	etc.	43(9.2)	25(16.6)	11(7.0)	7(4.4)
Monthly income (10,000 KRW)	Under 100	113(24.4)	67(44.4)	33(21.0)	13(8.3)
	100 - under 200	89(19.2)	28(18.5)	38(24.2)	23(14.7)
	200 - under 300	166(35.8)	40(26.5)	56(35.7)	70(44.9)
	Over 300	96(20.7)	16(10.6)	30(19.1)	50(32.1)

$\chi^2=481.86$, $df=45$, $p<.001$, 어머니: $\chi^2=442.11$, $df=45$, $p<.001$). 부모 모두 HPS의 10번 문항(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어머니/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이 나머지 문항과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10번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4 이하로 검토 또는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부모별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9문항이 1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조의 적합도가 우수하게 나타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모 각 9문항(총 18문항)으로 구성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세대인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모가 개입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가 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며, 하위영역별로는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90이며,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87였다.

2.2.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김구[35]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결속적(bonding) 유형과 교량적(bridging) 유형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닌 수준으로 구성원들 간 연결 상태를 의미하며, 교량적 사회자본은 자신과 사회구성원 간 유용한 정보 또는 새로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결 상태를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10문항(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자본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Cronbach's α 는 .94이며, 하위영역별로는 교량적 사회자본은 .93, 결속적 사회자본의 .89였다.

2.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36]의 회복탄력

성 척도(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Q-27)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하위영역별 9문항(총 27문항)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Cronbach's α 는 .90이며, 하위영역별로는 통제성 .78, 긍정성 .86, 사회성 .84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통계 프로그램과 AMOS 23.0을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하위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의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 회복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 차이

Table 2. Fit Indices for 10- and 9-item of Models of Helicopter Parenting

		item	χ^2	p	df	CFI	TLI	RMSEA
Helicopter Parenting	Father	10	191.335	.000	35	0.925	0.904	0.098
		9	152.196	.000	27	0.939	0.919	0.085
	Mother	10	93.330	.000	35	0.963	0.953	0.060
		9	67.945	.000	27	0.974	0.965	0.057

Table 3-1. Differences in Helicopter parenting, Social capital, and Resilience by Gender, Age

Variable	category	Total	Female (N=236)	Male (N=228)	t	19-24 yrs. (N=151)	25-29 yrs. (N=157)	30-34 yrs. (N=156)	F
		M(SD)	M(SD)	M(SD)		M(SD)	M(SD)	M(SD)	
Helicopter parenting	Father	2.38(.79)	2.18(.75)	2.58(.79)	5.62***	2.41(.80)	2.31(.80)	2.42(.78)	.87
	Mother	2.70(.74)	2.58(.78)	2.81(.68)	3.44***	2.75(.74)	2.64(.76)	2.70(.72)	.91
	Total	2.54(.69)	2.38(.68)	2.70(.67)	5.06***	2.58(.69)	2.47(.71)	2.56(.67)	1.03
	Paired-t	10.30***	8.77***	5.71***		6.01***	6.36***	5.46***	
Social capital	Bonding bridging	3.59(.73)	3.62(.73)	3.55(.74)	-.96	3.68(.74)a	3.60(.74)ab	3.48(.72)b	3.17*
		3.35(.63)	3.34(.62)	3.36(.65)	-.37	3.43(.67)	3.33(.63)	3.30(.59)	1.84
	Total	3.47(.62)	3.48(.60)	3.46(.64)	-.38	3.56(.65)	3.47(.62)	3.39(.59)	2.89
	Paired-t	8.77***	7.02***	5.32***		5.59***	5.80***	3.82***	
Resilience	Control	3.50(.51)	3.38(.48)	3.61(.51)	4.97***	3.48(.49)	3.48(.52)	3.53(.52)	.61
	positivity	3.39(.66)	3.34(.67)	3.44(.65)	1.66	3.49(.64)	3.33(.67)	3.34(.68)	2.69
	sociability	3.57(.61)	3.57(.63)	3.56(.60)	-.11	3.57(.64)	3.60(.62)	3.52(.58)	.63
	Total	3.48(.48)	3.43(.48)	3.54(.49)	2.43*	3.51(.48)	33.47(.49)	3.47(.48)	.40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s used(a)b>c)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2. Differences in Helicopter parenting, Social capital, and Resilience by Employment, Monthly income

Variable	category	Total	Not employed (N=195)	Currently employed (N=269)	t	under 100 (N=113)	100 - 200 (N=89)	200 - 300 (N=166)	Over 300 (N=96)	F
		M(SD)	M(SD)	M(SD)		M(SD)	M(SD)	M(SD)		
Helicopter parenting	Father	2.38(.79)	2.44(.82)	2.34(.77)	1.39	2.47(.84)	2.31(.79)	2.31(.76)	2.46(.78)	1.43
	Mother	2.70(.74)	2.69(.72)	2.70(.76)	-.07	2.75(.72)	2.80(.73)	2.62(.73)	2.66(.78)	1.36
	Total	2.54(.69)	2.57(.69)	2.52(.69)	.76	2.61(.68)	2.55(.67)	2.47(.70)	2.56(.71)	1.03
	Paired-t	10.30***	-5.10***	-9.35***		-4.04***	-6.32***	-7.69***	-2.87**	
Social capital	Bonding bridging	3.59(.73)	3.57(.69)	3.59(.76)	-.29	3.63(.73)	3.54(.72)	3.59(.80)	3.59(.64)	.26
		3.35(.63)	3.37(.63)	3.34(.64)	.55	3.36(.64)	3.29(.67)	3.37(.62)	3.37(.62)	.41
	Total	3.47(.62)	3.47(.60)	3.47(.64)	.11	3.50(.62)	3.41(.63)	3.48(.65)	3.48(.57)	.33
	Paired-t	8.77***	5.24***	7.03***		4.91***	4.14***	4.84***	3.54***	
Resilience	Control	3.50(.51)	3.52(.46)	3.48(.54)	.73	3.55(.46)ab	3.38(.51)c	3.46(.54)bc	3.62(.49)a	3.98**
	positivity	3.39(.66)	3.44(.64)	3.35(.68)	1.49	3.43(.67)	3.32(.71)	3.34(.69)	3.47(.54)	1.23
	sociability	3.57(.61)	3.56(.60)	3.57(.63)	-.05	3.60(.61)	3.51(.65)	3.55(.63)	3.60(.56)	.59
	Total	3.48(.48)	3.51(.46)	3.47(.50)	.92	3.53(.47)	3.40(.50)	3.45(.52)	3.56(.40)	2.29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s used(a)b>c)

* $p < .05$, ** $p < .01$, *** $p < .001$

청년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사회자본 및 회복탄력성 각각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정도는 평균 2.54점(SD=.69)으로, 하위영역인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은 평균 2.38점(SD=.79),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은 평균 2.70점(SD=.7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06$, $p < .001$). 즉,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 모두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아버지: $t=5.62$, $p < .001$, 어머니: $t=3.44$, $p < .001$). 한편, 남성과 여성 모

두 paired t-test를 통해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남성: $t=5.71$, $p < .001$. 여성, $t=8.77$, $p < .001$). 연령대별 부모 각각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령대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부모 각각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대별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평균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19세-24세: $t=6.01$, $p < .001$, 25세-29세: $t=6.36$, $p <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1	1-2	2-1	2-2	3	3-1	3-2	3-3
1-1.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1							
1-2.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633***	1						
2-1. Bonding social capital	-.079	-.080	1					
2-2. Bridging social capital	.001	-.048	.661***	1				
3. Resilience(Total)	-.089	-.173***	.616***	.578***	1			
3-1. Control	-.018	-.081	.329***	.394***	.780***	1		
3-2. Positivity	-.018	-.126***	.498***	.480***	.837***	.497***	1	
3-3. Sociability	-.176***	-.205***	.644***	.519***	.811***	.476***	.483***	1

* $p < .05$, ** $p < .01$, *** $p < .001$

30-34세: $t=5.46, p < .001$).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두 변인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 모두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미취업: $t=-5.10, p < .001$, 취업: $t=-9.35, p < .001$ / 월 100만원 미만: $t=-4.04, p < .001$, 월 100-200만원 미만: $t=-6.32, p < .001$, 월 200-300만원 미만: $t=-7.69, p < .001$, 월 300만원 이상: $t=-2.87, p < .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연령,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비해 높게 지각하였다.

사회자본은 평균 3.47점($SD=.62$)으로, 하위영역인 결속적 사회자본은 평균 3.59($SD=.73$)이며, 교량적 사회자본은 평균 3.35점($SD=.6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의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하위영역 평균 차이에 대한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결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남성: $t=5.32, p < .001$, 여성: $t=7.02, p < .001$). 연령대별 사회자본의 평균에서는 결속적 사회자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t=3.17, p < .05$). 즉, 20세 초반 집단이 30대 초반 집단보다 결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았다. 한편, 연령대별 사회자본의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의 평균이 교량적 사회자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19세-24세: $t=5.59, p < .001$, 25세-29세: $t=5.80, p < .001$, 30-34세: $t=3.82, p < .001$).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활동 여부와 월평균 소득의 사회자본 하위영역별 평균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결속적 사회자본의 평균이 교량적 사회자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미취업: $t=5.24, p < .001$, 취업: $t=7.03, p < .001$ / 월 100만원 미만: $t=4.91, p < .001$, 월 100-200만원 미만: $t=4.14, p < .001$, 월 200-300만원 미만: $t=4.84, p < .001$, 월 300만원 이상: $t=3.54, p < .001$).

회복탄력성은 평균 3.48점($SD=.48$)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보통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사회성은 평균 3.57점($SD=.61$), 통제성은 평균 3.50점($SD=.51$), 긍정성은 평균 3.39점($SD=.66$)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t=2.43, p < .05$).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통제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97, p < .001$). 월평균 소득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하위영역인 통제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98, p < .01$). 연령대와 직업활동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2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사회자본의 영향력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하위 영역을 분리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01과 .661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의심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로 확인되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Model of Resilience of Young Adults

Variable	Resilience							
	Control		Positivity		Sociability		Total	
	<i>B</i>	β	<i>B</i>	β	<i>B</i>	β	<i>B</i>	β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01	.08	-.01	-.08	.01	.06	.00	.02
Gender a	-.24	-.24***	-.13	-.10*	-.06	-.05	-.15	-.15***
Educational attainment	.01	.01	.09	.10*	.01	.01	.03	.05
Employment b	-.04	-.04	-.07	-.05	-.03	-.02	-.05	-1.05
Monthly income	.01	.02	.02	.03	-.01	-.02	.01	.01
Helicopter parenting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01	-.02	.07	.09	-.06	-.08	.00	.00
Maternal helicopter parenting	-.05	-.08	-.14	-.16**	-.10	-.12*	-.10	-.15***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11	.15**	.29	.33***	.45	.53***	.28	.43***
Bridging social capital	.24	.29***	.27	.26***	.16	.17***	.22	.29***
Constant	2.60(.000)		6.14(.000)		6.69(.000)		10.48(.000)	
F-value	14.92(.000)		23.86(.000)		43.44(.000)		45.06(.000)	
R ²	.23		.32		.46		.47	
R ² (adj)	.21		.31		.45		.46	
Durbin-Watson	1.93		2.08		1.97		2.04	

a 0: Male, 1: Female / b 0: Not employed, 1: Currently employed
* $p < .05$, ** $p < .01$, *** $p < .001$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을 살펴 보면, 성별($\beta = -.15$, $p < .001$),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beta = -.15$, $p < .001$), 결속적 사회자본($\beta = .43$, $p < .001$), 교량적 사회자본($\beta = .29$, $p < .001$)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낮게 지각할수록,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F = 45.06$, $p = .000$). 모델 설명력은 46%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beta = -.24$, $p < .001$), 결속적 사회자본($\beta = .15$, $p < .001$), 교량적 사회자본($\beta = .29$, $p < .001$)으로 검증되었다. 긍정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beta = -.10$, $p < .05$), 교육수준($\beta = .10$, $p < .05$),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beta = -.16$, $p < .01$), 결속적 사회자본($\beta = .33$, $p < .001$), 교량적 사회자본($\beta = .26$,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은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beta = -.12$, $p < .05$), 결속적 사회자본($\beta = .53$, $p < .001$), 교량적 사회자본($\beta = .17$, $p < .001$)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영역별 유의미한 변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통제성에서만 교량적 사회자본이 결속적 사회자본에 비

해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성에서는 교육수준($\beta = .10$, $p < .05$)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검증된 반면, 사회성에서는 성별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조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적응과 성장을 이끄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회복탄력성에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가 지각한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과도한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닌 부모의 지지가 제공될 때 청소년의 회

복탄력성은 긍정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19]와 유사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지나친 관여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세대의 자기가치감에 부정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7]와도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자녀 중 아들에게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 모두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38]와 일치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착된 통제와 관여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집중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에 관한 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 가치로 인식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사회는 현실적으로 성인 자녀의 의존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과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녀의 삶을 용인하는 문화적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가 부메랑 키즈, 연어족, 기생독신 등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고착화된 부모 의존이 노년기 부모의 삶에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지속할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의 주관적 안녕감이 저하될 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장기화로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청년세대 자녀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 중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회복탄력성 증진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과거와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이는 청년세대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 및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로 강조

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청년세대와 이들 부모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이더라도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내 학생생활 상담 및 관련 교육부서에서도 소속 학생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교육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기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50플러스센터 등에서 중노년층 대상 생애설계 교육을 구성할 때 성인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세대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 구축 정도가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 하위영역 중 결속적 사회자본이 교량적 사회자본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즉,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획득된 사회자본이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자원으로 기능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이 내면화될 때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4, 24, 39].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후 정서적 균형을 확보하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이다. 즉, 청년세대가 다양한 생활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예측을 넘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처능력을 의미한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삶의 만족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은 이들의 사회적 향상과 사회의 건강성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회복탄력성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사회불안과 사회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사회자본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략안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자본이 회복탄력성 증진에 유의미

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속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청년세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 기반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년세대의 삶의 현장에 지속적이며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지역 기반 공공기관은 결국적 사회자본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2020년부터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수당 참여자 또는 정신건강의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을 높이는 단회기성 특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획일화되고 개별화되지 않은 관련 사업 진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보다 심심이 나약하다는 프레임 속에서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논리적 비약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청년세대 공통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역경으로 지각하는 정도와 위험 수준은 다양할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도화되고 정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세대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 스스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역시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언택트(untact)에 대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오프라인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도 병행하며 참여자 밀착형의 정교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음의 한계점은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통제성은 긍정성, 사회성과 다르게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수준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영향력에서도 통제성에 한하여 교량적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결국적 사회자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차후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한계점은 있지만, 청년세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으로

서의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의 다각적인 영향에 의해 증진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20대에 국한하지 않고 34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한국사회 청년세대 삶 연구에 대한 스펙트럼 확장에 기여 하는 등 학술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REFERENCES

- [1] H. S. Kim. Korean young adults fall down in the COVID-19 attack. (2020. 7. 1). Pressian(Online).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30173754253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ee counseling support for youth depression and panic disorder*. (2020. 4. 17). Mediahub(Online).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7590>
- [3] J. Y. Kim & H. Y. Lee. *Employment and academic stress... young adults suffering from depression*. (2019. 9. 17). DongA.com(Online).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7/97433123/1>
- [4] J. Kim. (2019). *Resilience*. GoYang : Wisdomhouse.
- [5] OECD. *Discussing necessary competencies and improvement of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in an uncertain future*. (2019. 11. 16)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OECD. 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97
- [6] C. R. Wicks. (2005). *Resilience: An Intergrative Framework for Measurement*. Doctoral dissertation. Loma Limda University, Loma Limda(CA, USA).
- [7] J. J. Arnett. (2015).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8] B. N. Aydogdu, H. Celik & H. Eksi. (2017). The predictive role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emotional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young adults.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9, 37-54. DOI: <http://dx.doi.org/10.14689/ejer.2017.69.3>
- [9] K. Reivich & A. Shatté.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LA: Broadway.
- [10] Y. S. Choi. *3 out of 10 adult "My parents are helicopter parents"*. (2017. 6. 27). DongA.com(Online). <https://bizn.donga.com/3/all/20170627/85077368/2>
- [11] S. G. Han. *Helicopter Parents' Activity in University*. (2020. 5. 8). The Asia Business Daily(Online).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0714553950273
- [12] S. H. Min. *Helicopter Parents' Absurd Love*. (2016. 4. 17). MonthlyJoongang(Online).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1105
- [13] L. M. Padilla-Walker & L. Nelson. (2012). Black hawk down?: Establishing helicopter parenting as a distinct construct from other forms of parental control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5(5), 1177-1190.
DOI : 10.1016/j.adolescence.2012.03.007
- [14] T. LeMoyné & T. Buchanan. (2011). Does "hovering" matter Helicopter parenting and its effect on well-being. *Sociological Spectrum*, 31, 399-418.
DOI : 10.1080/02732173.2011.574038
- [15] J. Lee & S. Kang. (2018).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Korean emergi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child affection and 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11), 3672-3686.
DOI : 10.1007/s10826-018-1193-2
- [16] G. Y. Kim & J. H. Park. (2019).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depression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ssertiveness. *Korean Journal Child Studies*, 40(4), 165-177.
DOI : 10.5723/kjcs.2019.40.4.165
- [17] M. Cui, C. A. Darling, C. Coccia, F. D. Fincham & R. W. May. (2019). Indulgent parenting, helicopter parenting, and well-being of par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 860-871.
DOI : 10.1007/s10826-018-01314-3
- [18] M. Ungar.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Helping parents provide children the right amount of risk and responsi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3), 258-271.
DOI : 10.1080/01926180802534247
- [19] S. Hong, K. Jo, H. Lee, S. Son, H. Kim, Y. Kang & M. Yoon. (2020).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Resilience in Adolescents.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Resilience in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No. 63, 109-134.
DOI : 10.17854/ffyc.2020.07.63.109
- [20] M. Ungar. (2008). Resilience across Cultur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2), 218-235.
DOI : 10.1093/bjsw/bcl343
- [21] R. D. Putnam.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22] E. J. Jung & J. D. Lee. (2018). Exploration of Social Capital Components Affecting Individual Perception of Happiness.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13(1), 27-45.
DOI : 10.21329/khrd.2018.13.1.27
- [23] J. Yi, H. Gao & J. Hwang. (2017).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social capital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perception in early adult period.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3), 397-422.
DOI : 10.22251/jlcci.2017.17.23.397
- [24] R. J. Taormina. (2015). Adult personal resilience: a new theory, new meas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Psychological Thought*, 8(1), 35-46.
DOI : 10.5964/psyc.v8i1.126
- [25] S. A. Kang, H. W. Kim & B. J. Park.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relation between job seeking stres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77-98.
DOI : 10.21509/KJYS.2016.01.23.1.77
- [26] B. Cho & J. Lee. (2019).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1-11.
DOI : 10.14400/JDC.2019.17.4.001
- [27] N. Kim & S. S. Kim. (2013).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1125-1144.
DOI : 10.15703/kjc.14.2.201304.1125
- [28] Y. Park, & S. Jang. (2020).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Style on Stress Coping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555-566.
DOI : 10.5392/JKCA.2020.20.12.555
- [29] S. R. Noh & S. Yang. (2019).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5), 513-539.
DOI : 10.21509/KJYS.2019.05.26.5.513
- [30] M. Jang. (2020).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Social Anxiety :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5), 901-921.
DOI : 10.24159/joec.2020.26.5.901
- [31] J. Choe & K. Lee. (2013).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in Korea by Region: Factor Analysis Based Index.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31(1), 219-251.
- [32] S. W. Ok, M. Sung & K. Y. Shin. (2000).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and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9), 1-17.
- [33] T. LeMoyné & T. Buchanan. (2011). Does "hovering" matter Helicopter parenting and its effect on well-being. *Sociological Spectrum*, 31, 399-418.
DOI : 10.1080/02732173.2011.574038
- [34] S. Kang & J. Le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licopter parenting scale for an expanded age range of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 22(2), 3-25.

DOI : 10.21321/jfr.22.2.3

- [35] G. Kim.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s of Online Activities about Social Capital Formation of Online and Offline: Focused on the Undergraduate.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4), 5-44.
- [36] W. Shin, M. Kim & J.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37] L. J. Nelson, L. M. Padilla-Walker & M. G. Nielson. (2015). Is hovering smothering or loving? An examination of parental warmth as a moderator of relation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emerging adults' indices of adjustment. *Emerging Adulthood*, 3, 282-285.
DOI : 10.1177/2167696815576458
- [38] H. Ahn & K. Seol. (2020). Helicopter parenting, social well-being, and core self-evaluation of young adult children: As viewed through the prism of gender differences. *Studies on Korean Youth* 31(3), 33-58.
DOI : 10.14816/sky.2020.31.3.33
- [39] S. Bae. (2017). The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0), 113-140.
DOI : 10.22251/jlcci.2017.17.20.113

전 지 원(Jeewon Chun)

[정회원]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가정학사)
- 200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가정학석사)
- 200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가정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사

- 관심분야 : 세대관계, 가족역량, 가족자원관리
- E-Mail : cjeewon@sookmyung.ac.kr